

단편

안녕, 오유월

S#.1 천변 (낮) Day

insert_ 하늘에 구름과 빛이 비치는 물가

화창한 날씨 두 학생이 나란히 앉아있다

상처투성이인 한민은 풀이 죽어 웅크려 앉아있는 유월을 위로한다

한민 (유월의 머리에 손을 올린다)

야 너무 걱정하지 마

유월 ...

한민 아 진짜 아니래도... 괜찮아

유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한민은 조금 당황하다 이내 헛웃음과 함께 무언가 뒤적거린다

유월은 고개를 떨군 채 울적인 표정을 짓는다

유월 괜히 나 때문에...

그때 말을 끊는 플래시 불빛과 함께 찰칵 소리가 난다

소리 쪽을 바라보는 유월,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들고 있는 한민의 모습

유월 아이 또... 찍지 말랬잖아

한민 (놀리며 웃음) 너 이제 큰일 났다, 울어서 콧구멍 개 커졌어

한민이 폴라로이드에서 나온 사진을 보여주자

얼굴이 부은 유월의 모습이 보인다

유월 아 진짜 내놔... (한민을 잡으려 손짓한다)

한민 싫은데 (장난스럽게 피하는 몸짓)

한민은 유월을 피해 사진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유월은 손짓으로 이리저리 한민을 쫓으며 뒤따라간다

유월 아 정한민 진짜 주라고
한민 (웃음) 잡으면 돌려줄게

페이드 아웃과 함께 한민의 웃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검은 화면 속에 문구

2015년 6월 1일

*안산 상록구에 한 옥상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투신해 사망
다수의 폭행의 흔적이 있지만 경찰은 자살 사건으로 이를 종결함*

늘어지는 목소리가 이명처럼 반복된다

S#.2 공터 (낮) _ Day

늘어지던 한민의 웃음소리가 준형의 웃음이 되어 이어진다
수많은 다리 사이 유월의 신발이 보인다

준형 내놔 이새끼야...

준형은 유월을 벽 쪽으로 걷어찬다
기침을 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유월

준형 그동안 편했지? 맞을 일도 없고

석훈이 유월의 가방을 두 손으로 잡아 반대로 뒤집더니

이내 유월의 물건들이 우수수 바닥에 어질러진다

석훈은 바닥에 널 부러진 물건들 중,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줍는다

석훈 뭐야 이건

정안 애 보라? ... 왜 우리 몰래 찍게?

유월 (떨리는 목소리) 아니야... 돌려줘

석훈이 바닥에 어질어진 물건 중 한민의 사진을 발견한다

석훈 야 이거 보라... 죽은 새끼 사진을 들고 다니는데

유월 (당황) 돌려달라고!

유월은 사진기를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달려들자

정안이 막아서고 유월을 두 팔로 밀쳐 넘어뜨린다

정안 이새끼가 미쳤나...

석훈 야 너 게이냐? (비웃음) 니들 둘이 사겼냐?

유월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침)

유월이 달려들자,

준형은 심기 불편한 표정으로 정안 손에 들려 있는

사진기를 건너 받아 들어 올린다, 유월이 움찔거리며 멈춰서자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내 사진기를 벽에 던져버린다.

처참히 부서진 사진기가 보인다

유월 아... (벽 쪽을 바라보며 몸을 돌린다)

안돼...(주저앉아 허망한 표정으로 사진기를 바라본다)

이때 준형이 유월의 곁으로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 올려 눈높이를 맞춘다

준형 아이… 이 벌레새끼야 (일그러진 표정을 유월을 바라보며)

 역겨워 죽겠네, 다시 니 차례야 알아들어?

유월 아…아… (겁에 질린 표정)

준형이 반대 손을 들어 유월의 뺨을 내리친다

유월이 그대로 넘어지자, 석훈과 정안이 유월을 일으켜 세워

일방적으로 잡힌 유월을 다시 구타하기 시작한다

유월의 쓰러지는 모습 슬로우, 다음 씬과 연결

S#.3 침실 (낮) _ Magic hour (f)

전 컷과 연결되며 유월이 침대로 쓰러져 있다

한숨을 쉬고 옆으로 돌아눕자, 서랍 위, 한민과 어깨동무를 한 액자가 눈에 들어오고

유월은 액자 속 사진을 한참동안 바라본다

잠시 뒤 유월은 얼굴의 상처가 따가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진다

S#.4 부엌-방안 (낮) _ Magic hour (f)

선반에서 익숙한 듯 구급상자를 꺼내, 드르륵 소리와 함께

식탁 앞에 앉아 상처를 치료한다

유월 아 따가…

유월은 교복도 갈아입지 않은 채로 불을 끄고

베개 얼굴을 파묻고 잠을 청한다

S#.5 천변 (낮) _ Day

화창한 날씨에 유월은 한민과 대화를 나눴던 장소를 멍하니 바라본다
이내 유월은 천천히 몸을 이끌며 절뚝거리며 그곳으로 걸어가다
한숨을 내쉬며 한 켠에 걸터앉는다

그때 뒤에 누군가 계단을 타고오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끼는 유월
준형의 무리가 아닐까 경계하며 숨 죽이며 그곳을 응시한다
예상을 깨고 한 소년이 걸어온다

소년 (능청스럽게) 안녕, 많이 기다렸지

유월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년을 응시한다

소년 뭐야 왜 그렇게 뚱하게 있어 (웃는다)

유월 누구...야?

소년 악몽이라도 꾸거야?

유월 누군데...년

소년 누구긴 누구야 나지, 괜찮아?

소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유월의 어깨를 잡지만
유월은 이내 천천히 뿌리치고 뚱한 표정으로 스치듯 걸어간다

소년 야! 오유월! 어디가!!

소년을 무시한 채 자리를 떠나는 유월의 모습

S#.6 교실-복도 (낮) _ Day (f)

유월은 조용한 교실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지 않는 메신저 창을
멍한 채 들여다보고 있다 그때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준형 무리들이 문을 열고 들이닥친다
몇몇 아이들이 웅성대기 시작한다

석훈 여기 있네

준형은 유월에게 빠르게 다가와 어깨동무를 걸고 교실 밖으로 끌어낸다

준형 야, 웃어 다 쳐다보잖아 (살가운 목소리)

유월 ... (마른침을 삼킨다)

준형 죽기 싫으며 친한 척 똑바로 해라 (귀에 대고 살벌한 목소리)

유월은 준형 무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간다

준형은 선생님을 마주치지만 살갑게 웃으며 인사한다

조금의 위화감을 느끼는 선생님의 표정

선생님을 지나치자 어깨동무 한 팔에 힘을 준 채

무리들과 유월을 창고로 데리고 간다

S#.7 강당 (낮) _ Day

준형의 무리는 유월을 벽 앞에서 둥글게 에워싸고 가로막은 채
두려워하며 웅크린 유월을 바라보며 실실 웃고 있다

정안 (크게 웃는다) 자 거기 딱 서

유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석훈 야야 움직이지마

석훈은 아주 세게 축구공을 발로 찬다 유월을 한 곳 차이로

빛나간 공이 벽에 큰 소리와 함께 부딪히며 굉음을 낸다
그 소리에 유월은 놀라 몸을 잔뜩 웅크리고 부들부들 떠다

석훈 와 씨 개까비

정안 아이 비응신, 어떻게 그것도 못 맞추냐?

석훈 야 니가 해봐 (비웃음)

정안 (준형을 응시한다) 준형아, 애 이제 어떡해?

준형 (웃으며 천천히 다가온다) 애 떠다, 추운데 목도리 둘러줘

준형의 목소리가 이명처럼 반복된다

S#.7 -1 회상 _ 강당 (낮) _ Day

한민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체육 창고 밖에서
유월이 책 가방을 안고 등을 기대 숨어있다 이때 들려오는 목소리

준형 아이 귀여운 새끼, 또 안 가지고 왔네

 야 애 목도리 좀 둘러줘

벽에 기대 떨고 있는 유월이 모습으로 회상이 끝난다

정안은 유월에게 다가오더니 뒤에서 붙잡고 팔로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준형 야, 앞으로는 친구 팔아먹고 그러지 마라 어? 알겠어?

목이 졸린 상태로 질질 끌려 다니는 유월은 고통에 몸부림 치며 신음한다

석훈 야 준형아 살살해 그러다 개처럼...

준형 닥쳐 씨발아

정안 야 애 거품 무는데... (말 끝이 늘어진다)

유월은 시야가 흐려지고 정신을 잃는다

S#.8 옥상 (밤) _ Night (f)

화창한 날씨의 옥상에서 눈을 번뜩 뜨는 유월

유월 으악! (벌떡 일어나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쉰다)

정신을 차리자 바로 옆에는 누군가 자신을 등지고 있다

소년 일어났어? 꽤 아파 보이던데

유월 아까... 분명...

소년 오랜만에 같이 공이나 차려 가자

잠시 짧은 침묵이 흐른다

유월 자꾸 누군데 나한테...

소년 (능청스럽게) 아 그것보다

소년은 미소 지으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찰칵 소리와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유월을 찍는다

깜짝 놀라는 유월의 표정

유월 한민이...

소년 (폴라로이드를 손으로 만지작거린다)

유월 그...그거... 어디서 났어

소년 (사진을 손으로 잡는다) 자

유월 니가 훔쳐갔지...내놔
소년 아 이거 갖고 싶은거야? (웃는다)
유월 얼른 내놓으라고! (화 난 목소리)

소년은 웃으며 자리를 박차며 사진기를 든 채로
출구 쪽으로 빠르게 뛰쳐나간다

소년 (환하게 웃으며) 잡아봐라
유월 (자리를 박차고 뛴다)

유월은 옥상을 떠나는 소년의 뒤를 따라가지만
금방 시야에서 놓치고 말고 바람에 옥상 문이 닫힌다
유월은 곧 장 손잡이를 잡고 열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S#.9 집 안 (밤) _ Night (f)

들어온 것은 집안 유월은 눈을 깜빡이고 정신을 차린다
방금까지 있었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앞에 보이는 것은
평소와 같은 자신의 집안이다 유월은 땀투성이인 모습으로 상처의 고통을 느낀다

유월 (상처부위를 잡으며) 아 따가...

집안은 조용하고 고요하다
유월은 불안한 표정과 눈으로 집안을 잠시 서성거린다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벨소리 _ Komm, Susser Tod)

유월은 수신인을 보고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는다

유월 (힘없는 목소리) 여보세요…?
전화 유월 학생, 잘 지내고 있죠? 청소년 돌봄 선생님이에요
유월 …
전화 지난번에 집에 없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잘 있는 거 맞죠?
유월 아…
전화 그래요, 선생님이 다음에도 또 방문하려는데.. 우리 유월 학생 있을 때..

유월은 전화를 받으며 전신 거울로 본인의 모습을 바라본다
준형 무리에게 괴롭힘 당했을 때와 같은 모습 그대로이다

전화 여보세요…?
유월 선생님 집에 오지마세요…
전화 음… 유월 학생 그게…

유월은 전화를 푼 후 화장실로 들어가
더러워진 교복을 벗고 상처 난 팔을 씻어낸다.

S#.10 집 안 - 방 (밤) _ Night (f)

환복을 끝낸 유월은 물 한 컵을 들고 방에 들어와 앉는다
책상 앞에 올려진 한민과 찍은 사진을 멍하니 응시한다
조금 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액자를 덮는다

유월은 선반을 연다, 수두룩한 알약 봉지들 속에서 한 봉지를 꺼내
열어 급하게 물과 함께 넘기고 봉지를 쓰레기통에 구겨넣는다

유월은 한숨을 쉬고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니 베개에 얼굴을 파묻는다
흐느끼는 유월의 소리가 방안에 울린다

S#.11 학교 _ 옥상 (낮) _ Day (f)

유월은 학교 옥상에서 깨어난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유월은 옥상을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옥상의 끝에 도착한 유월은 앞에 놓인 의자를 쳐다보다

무언가 결심한 듯 의자를 밟고 올라 옥상 바닥을 응시한다

한참을 서있던 그때 인기척을 느낀다

소년 떨어지려고?

유월 ... (소년을 바라본다)

소년 안녕, 오유월

유월 ... 도대체 뭐야

소년 오랜만에 공이나 차려

유월 말해...

소년 ...

유월 왜 자꾸 한민이 인척 하는지 말해

 넌 누구고... 여긴 어디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전부

소년 그렇게 서두르지마

유월 뭐냐고 대체!

화난 목소리의 유월에 소년의 미소는 사라지고 무표정으로 유월을 응시한다

소년 여기 모르겠어?

유월 그게 무슨 소리야

소년 너는 나잖아

유월 ...어?

유월은 소년의 눈동자를 바라본다

S#.11-1 회상 (밤) _ night (f)

상처투성으로 옥상의 끝에 서있는 한민
옆에는 플라로이드 사진기가 걸려있다

한민 ...

한민은 유월에게 무언가 말하려 듯한다
유월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 충격을 받는다
쿵 소리와 함께 핸드폰이 떨어지며 회상이 끝난다

유월 (뒷걸음질) 아니야...이건...진짜가 아냐...

소년 네가 죽인 거야, 네가 망설여서

유월 (고개를 돌린다) 아니야...!

소년 넌 두려웠잖아 개 랑 똑같이 될 까봐

유월 ...

소년 오유월

소년은 유월의 눈 앞까지 가까이 다가온다

소년 넌 행운아야, 걱정 하지마

유월은 두려운 표정으로 머리를 부여잡는다
흐느끼는 유월을 붙잡고 소년은 기괴한 표정으로 얼굴을 맞댄다

소년 내가 널 도와줄게 (유월의 손을 잡는다)

유월 ...

소년 다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유월 뭐라는 지 하나도 모르겠어…

소년 이런 일이 없도록 옳은 일을 하는거야

유월은 불안한 표정으로 바닥을 쳐다본다

소년 다시 한민이를 만날 수 있어

유월은 적잖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본다

소년 옥상을 나가기만 하면

시끄럽게 불던 바람소리가 멈춘다

그때 유월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얼어붙는다

유월은 무언가 다짐한 듯 떨어진 휴대폰을 줍고

옥상의 문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오직의 유월의 그림자만이 옥상에는 존재한다

유월은 떠나기 전 아무도 없는 옥상을 바라본다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간다

insert _ 아무도 없는 텅 빈 옥상

S#.12 강당 (밤) _ Night

준형이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

석훈과 함께 웃고 떠들며 나타난다

창문을 바라보며 강당에 혼자 서있는 유월의 뒷모습

준형 뭐야 저새끼

석훈 맞기 싫어서 빌려고 왔나봐 (비웃는 속삭임)

준형 야!

유월이 대꾸를 하지 않자

준형이 점차 가까이 다가온다

그 옆으로 정안이 쓰러져있다

석훈 뭐야 이새끼, 왜 자빠져 자고 있어

대답이 없는 정안의 모습에

준형은 위화감에 점차 더 빠르게 유월에게 다가가고

준형 야,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꺼 아니...

어깨를 잡는 순간

유월은 주머니에 숨겨뒀던 송곳을 꺼내 준형의 목을 찌른다

Insert 바닥에 똑똑 떨어지는 혈흔

준형 커헉...(피를 흘리며 털썩 주저앉는다)

석훈 준...준형아...? (벌벌 떠다)

유월은 기괴한 표정으로 석훈을 바라본다

석훈 으아아아악!

석훈은 겁에 질려 소리 지르며 뒤돌아 뒤 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진다 숨을 몰아쉬는 석훈은 순간 뒤를 돌아본다
그대로 석훈은 목이 찢려 죽는다
태연한 표정으로 일어나는 유월,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다 자리를 떠난다

S#.13 천변 (낮) _ Day

Insert 푸르른 하늘과 화창한 날씨

화창한 날씨 익숙한 장소에 유월이 웅크려 앉아있다
한민은 멀리서 뛰어와 유월을 부르며 깨운다

한민 야! 오유월!! (웃음)

유월은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털고 한민을 보고 미소 짓는다
한민은 웃으며 유월에게 어깨동무를 건다

검은 화면 속 문구

2015년 8월 2일

*안산 상록구에서 주택가 살인 사건이 발생
학교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학생 한 명이
가해자 3명을 살해 후 투신하여 사망*

문구 이후 들리는 쿵 소리

S#.14 건물 바닥 (밤) _ Night

옥상에 남겨진 플라로이드와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는 유월의 눈동자로 끝이 난다.

END.